

불 (Fire)은 언어, 문자, 경작법 및 화폐 등과 더불어 인류 문화를 발전시켜온 크나 큰 동인이었다. 불의 사용이야말로 진정 인류 개화의 근원이었으며 태고(太古)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류 문명 발전의 일대 원동력이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불은 인류 생활 전반, 즉 식생활의 획기적 진보, 야간 생활의 안전화, 야간 활동의 효율화, 맹수 및 외적의 방어, 한냉지역으로의 거주 지역 확대 등 여러분야에 막대한 기여를 해왔다.

이러한 불의 기원이라든가 자연화의 이용, 인공화의 발명 등에 대한 역사적 고찰도 그 의의가 없지 않으나 여기에서는 산업 자본주의 이후 근대적인 제조, 운송, 광열, 동력 등 모두가 불의 이용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공장의 연돌이 불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기념탑적인 상징물이라고 생각할 때 불에 대한 우리 인간의 고마움은 더할 나위가 없다.

불은 과학적으로 보면 연소(燃燒)라고 할 수 있는 화학 현상에 지나지 않으나 인간 생활과의 관계는 Hearth and home이라고 하는 세계 공통의 표현에서 더욱 잘 나타나고 있다. 불이 인간의 벗이며 하인(僕)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Friendly Fire(友愛火)로서 Nutz Feuer(使用火)이다.

그러나 잘 길들여지고 유순하던 불도 일단 인간의 지배를 떠나 난폭해지면 붉은 괴물이 되어 적의(敵意)에 가득찬 Hostile Fire(敵對火)로서 해악을 품은 Sohaden Feuer(損災火)로 전환된다. 이것이 이른바 화재이다.

화재의 해악은 제 2의 불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의 실용화가 이루어지고 제3의 불이라고 불리는 원자력의 등장에 있어서 이를 충분히 통제할 수 없을 때 새로운 형태의 위험과 손해를 낳게 된다.

우애화와 사용화는 경제적 가치의 창조에 유익하지만 해화(害火) 즉 화재는 경제적 가치의 파괴를

불과 인간과 보험과의 관계

고 양 곤 <전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강제하게 된다. 현대의 개인주의적 자유주의 사회에 있어서 화재는 이재자(罹災者)에 있어서는 개인적 재해이지만 아울러 사회적 재해가 될 가능성을, 다분히 포함하고 있다.

단 한번의 화재가 건물의 결집도, 풍속, 풍향, 건조도 여하에 의하여 연소(延燒)를 가속

화하여 소방력을 압도, 전시(全市)를 완전 잿더미로 만드는 일도 드물지 않다.

최근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재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물론 방·소화의 불비가 근본적으로는 경제적, 기술적 이유와 정치력의 빈곤으로 귀착된다고 보지만 대화에 대한 일반의 관심과 주의 환기는 항상 필요하다.

화재에 대한 대책을 국민 경제적 입장에서 보면 예방 및 진압은 항상 보험에 우선 한다. 화재가 사회적 해악이며 방화, 소방이 공익적 요청이라면 사적 이익은 공적이익에 우선할 수가 없다.

화재보험 가입자가 때로는 보험금의 취득을 목적으로 화재를 유치(방화)하거나 또는 화재의 확대를 방지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화재보험의 가입자가 비가입자보다 방화 및 소화 의욕이 둔화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화재보험에서는 직접, 간접으로 방화 및 소화를 조장(助長)하고 또한 화재보험의 입법이나 약관 작성에 있어 방화 및 소화의 장려에 유의해서 그를 보험금부의 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 취지는 화재보험뿐만 아니라 손해 보험의 일반에도 적용되고 있다. 예컨대 이득 금지, 초과보험의 금지, 차별 보험료 제도의 채택 등이 모두 재해의 예방 및 진압의 견지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한편 보험자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방재(防災)에 협

력해야 함은 단순한 보험 사업 경영상의 유지뿐만 아니라 재해 때문에 생계가 유지된다고 보는 보험 기업 종사자들의 당연한 사회적 책임이라고 보아야 한다.

